

2024.04.04.(목) 증권사리포트

SK텔레콤

40년간 이겨낸 규제. 이번에도

[\[출처\] NH투자증권 안재민 애널리스트](#)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에 대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65,000원 유지. 단통법 폐지, 번호이동 지원금, 3~4만원대의 5G 저가 요금제 출시 등 통신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여러 규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AI Company로의 전략 변화, 구독 상품 매출 확대, IDC와 같은 B2B 사업 성장으로 B2C 사업의 성장 둔화를 이겨낼 전망

2024년 이후 3개년간 주주환원정책이 조만간 공개될 것. 주당배당금이 한번도 줄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지난해 지급한 주당 3,540원은 최소한 보장될 것으로 전망하며,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기대

1분기 실적은 선방할 전망

SK텔레콤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4조원(+1.1% y-y, -2.4% q-q), 영업이익 4,892억원(-1.1% y-y, +64.7% q-q)으로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 5,120억원 및 시장 컨센서스 5,083억원을 소폭 하회할 전망. SKT별도 매출액은 3.1조원(+0.4% y-y)으로 5G 보급률이 70%에 육박하고 저가 요금제 등장으로 무선 사업의 매출(2.6조원, -0.3% y-y)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무선 ARPU도 29,227원(-2.7% y-y)으로 감소 불가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통제로 인해 영업이익은 선방할 전망. 인건비는 2,453억원(+5.2% y-y) 예상. 마케팅비용(별도)은 7,593억원(+0.4% y-y, -3.4% q-q)으로 번호이동 지원금 정책이 3월 이후 시행되어 아직은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 다만, 2분기 이후 마케팅비용 변동 가능성은 예의 주시할 필요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17,609	17,751	18,150	18,627
증감률	1.8	0.8	2.2	2.6
영업이익	1,753	1,786	1,874	1,931
증감률	8.8	1.9	4.9	3.1
영업이익률	10.0	10.1	10.3	10.4
(지배지분)순이익	1,094	1,067	1,136	1,193
EPS	4,997	4,961	5,291	5,556
증감률	19.9	-0.7	6.6	5.0
PER	10.0	10.4	9.7	9.3
PBR	1.0	0.9	0.9	0.9
EV/EBITDA	3.5	3.5	3.4	3.2
ROE	9.6	9.2	9.6	9.7
부채비율	146.3	135.6	133.2	130.3
순차입금	7,574	7,576	6,802	6,101

단위: 십억원, %, 원, 배



진성티이씨
 캐터필라와의 과도한 주과 괴리
 [출처] DS투자증권 김수현 애널리스트

23년 Slow down, 24년 회복세 진입

23년 매출액 4,850억원(-10.3% YoY), 영업이익 396억원(-40.3% YoY)의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시장 약화와 동남아 시장의 부진이 주요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판가 인하와 환율 영향 등으로 매출 감소와 전반적인 원가율 상승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24F 매출액은 5,042억원(+3.9% YoY), 영업이익 418억원(+5.6% YoY, OPM 8.3%)의 회복이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캐터필라향 수량은 줄었으나 판매가 회복으로 매출은 증가 추세에 있다.

캐터필라 24년 역대 최대 실적 유지 가이드스 발표

전체 매출의 60%가 캐터필라 굴삭기향이며 그 외 Botcat과 신규로 진입한 JohnDeer향 매출 비중도 각각 5% 미만이다. 특히 캐터필라 중장비 협력사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M/S는 60%로 추정된다.

23년 역사상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캐터필라는 24년에도 양호한 경영 환경을 예고했다. 23년 매출 670억 달러 기록, 24년 회사의 매출 가이드스 상단은 720억 달러 (+7.4%YoY)로 역대 최대 매출 경신을 예고했다.

24F PER 7배 미만에 거래 중 / 캐터필라와의 주가 괴리 최대

주요 투자 포인트는 1)탈중국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주도의 광산 채굴 증가와 이에 따른 수요 증가, 2) 미국 고객사의 24년 안정적인 매출 흐름, 3)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이 가장 많았던 미국이 재건 사업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24년 실적 대비 현재 PER 7배 미만에 거래 중이다. 최근 1년간 캐터필라의 주가 괴리도 역대 최대로 확대되어 있어 주가 downside risk는 제한적이다. 다소 모멘텀이 부족하지만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 플로우에 따라 주가 upside는 열려 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F
매출액	311	438	541	485	504
영업이익	23	25	66	40	42
영업이익률(%)	7.4	5.8	12.3	8.2	8.3
세전이익	23	24	64	40	47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5	17	45	28	34
EPS(원)	674	760	2,021	1,423	1,689
증감률(%)	-31.1	12.7	166.0	-29.6	18.7
ROE(%)	10.5	10.7	24.0	12.9	13.7
PER(배)	18.4	13.6	6.5	8.8	6.2
PBR(배)	1.9	1.4	1.4	1.2	0.9
EV/EBITDA(배)	9.1	8.3	4.4	5.0	3.6

자료: 진성티이씨,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대원산업

카니발이 잘 팔리면서 수혜를 받습니다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러시아 법인의 부진을 한국 법인의 성장으로 만회

대원산업은 기아/현대차량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한국(매출비중 93%)/베트남(4%)/중국(3%)/러시아(0%)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2023년 매출액/영업이익은 6%/51% 증가한 7,786억 원/473억원(영업이익률 6.1%, +1.8%p)을 기록했다. 매출 비중이 20% 전후였던 러시아 법인이 지정학적 변수로 고객사의 생산이 급감하면서 2021년 매출액/영업이익 1,391억원/44억원에서 2022년 339억원/-21억원, 2023년 16억원/-8억원으로 부진했다. 해외 법인의 부진을 한국 본사에서 주요 공급 모델의 생산증가와 믹스 개선으로 만회하면서 연결 매출액이 증가했다. 특히, 한국 법인 내 비중이 40%에 이르는 카니발 생산이 2023년 34% 증가하면서 관련 수혜가 있었다. 영업이익률이 2019년~2022년 4% 초반에서 2023년 6% 이상으로 상승했는데,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와 함께 러시아 구조조정에 따른 적자폭 축소, 그리고 판매보증비의 일회성 환입 등이 기여했다.

2024년 한국에서는 카니발 효과가 이어지고, 러시아는 최악에서 회복될 가능성
2024년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3%/-6% 변동한 8,000억원/446억원(영업이익률 5.6%, -0.5%p)으로 예상한다. 2024년 자동차 산업수요 증가율이 하락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전년 11월 출시된 신형 카니발 및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의 수혜가 예상되고, 러시아에서는 고객사의 공장 매각 후 재가동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중순 이후 최악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베트남에서는 고객사 생산에 연동하며 성장할 것이다. 외형 성장에도 영업이익률은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2023년 일회성 환입이 있었던 판매보증비가 정상화되고, 러시아 법인의 재가동 준비에 따른 초기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P/E 3배 대와 P/B 0.2배 후반의 극히 낮은 Valuation을 기록 중
현재 주가는 2024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P/E 3배 대, P/B 0.2배 후반의 극히 낮은 Valuation을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이 27%에 불과하고, 시가총액(1,200억원대)보다 많은 2,185억원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 평균 Capex가 245억원(vs. 감가상각비 196억원, EBITDA 558억원)으로 현금흐름도 양호하다. 단일 제품군 및 주 고객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객사들의 생산 사이클에 연동된다는 점과 배당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점(최근 2년 주당배당금 175원 기준 2.8%)은 Valuation상 할인 요인이다. 하지만, 57년 업력을 기반으로 고객사와 함께 꾸준히 성장 중이고, 카니발 신차 효과가 이어지고 있으며, 2년간 부진했던 러시아 법인이 최악을 지나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Valuation은 저평가된 상태라는 판단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643	763	737	779
영업이익	28	30	31	47
세전이익	22	51	51	51
순이익	18	33	38	36
EPS	902	1,634	1,879	1,784
증감율	(53.7)	81.2	15.0	(5.1)
PER	6.1	4.2	2.8	3.3
PBR	0.3	0.4	0.3	0.3
EV/EBITDA	0.0	0.0	0.0	0.0
ROE	5.4	8.8	9.0	8.0
BPS	16,584	18,556	20,844	22,246
DPS	125	125	175	175

도표 2. 대원산업의 주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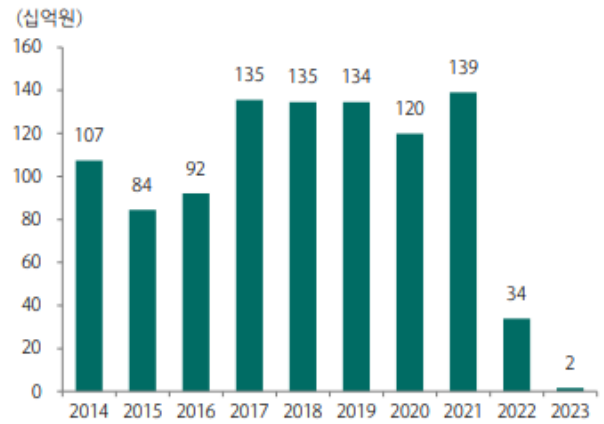
자료: 대원산업, 하나증권

도표 4. 신형 기아 카니발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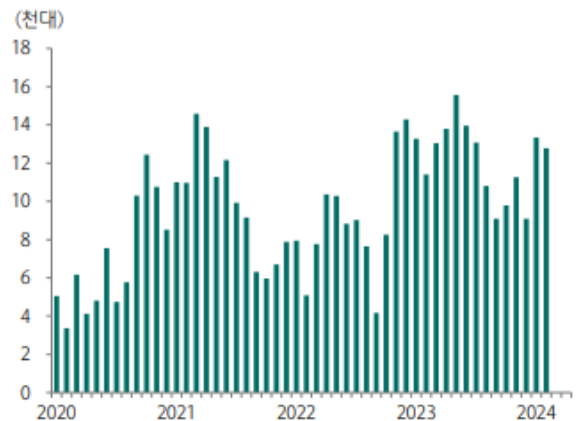
자료: 기아, 하나증권

도표3. 대원산업 러시아법인의 연간 매출액 추이



자료: 대원산업, 하나증권

도표 5. 기아의 카니발 생산대수 추이



자료: 기아, 하나증권

1Q24 비우호적 업황 속 양호한 실적 전망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9,549억원(+40.5% yoy), 637억원(+7.4% yoy)으로 전망되며 기존 IBKS 추정치(9,591억원 / 678억원)에서 음료 원가 부담 및 주류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을 반영해 영업이익을 약 6% 하향함. 다만 4Q23 실적 발표 이후 낮아진 시장 기대치(9,583억원 / 602억원)는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음료보다는 주류 부문 이익 개선 기대감 높아

부문별로, 음료(별도) 매출액은 4,446억원(+5.1% yoy), 영업이익은 396억원(+1.5% yoy)으로 추정됨. 탄산과 에너지 음료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고, 주스도 과일가격 상승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매출 개선이 가능할 전망. 커피와 생수는 전년 수준, 스포츠 음료와 다류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됨. 설탕 등 투입 원가가 여전히 높고, 원·달러 환율 상승을 고려하면 영업이익은 전년 수준에 그칠 전망

주류(별도) 부문 매출액은 2,208억원(+6.3% yoy), 영업이익은 185억원(+6.0% yoy)으로 예상됨. 전년 월 평균 100억원 수준이던 새로 판매액이 올 들어 120~130억원 수준으로 확대됨. 크리시 월 매출도 2월 캔맥주 출시 이후 50억원대(이전 10억원대)로 증가함. 늘어난 마케팅 비용은 소주 가격 인상 및 맥주 공장 가동률 상승 효과로 상쇄, 전년 수준의 수익성은 나올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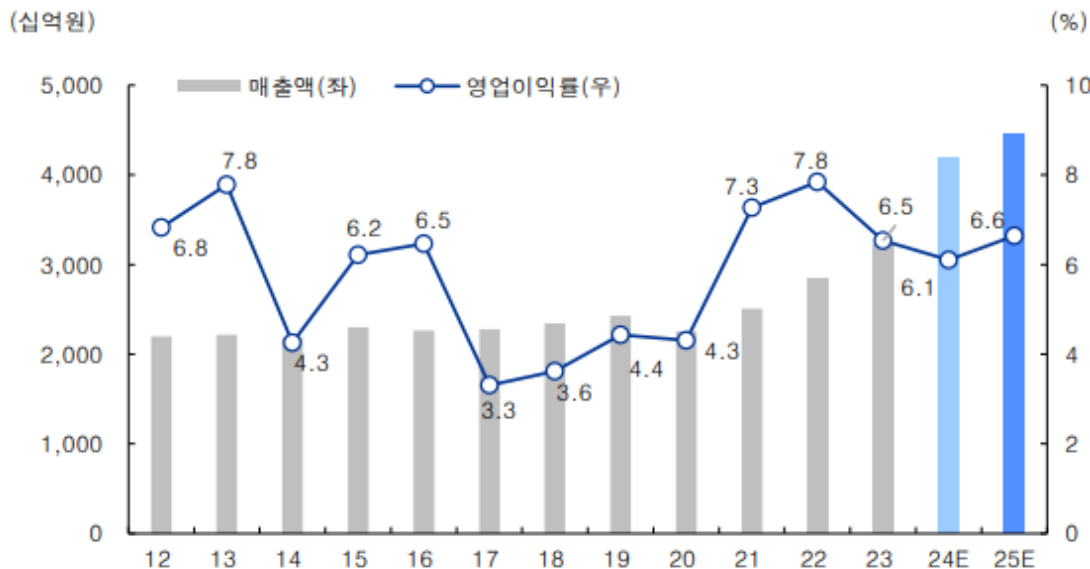
모멘텀 불구 밸류에이션 낮은 수준

주류 업황이 다소 침체됐지만, 2분기 중 새로 살구(리큐르) 출시가 예상되며, 맥주 공장에서 수출용 소주도 교차 생산할 계획임을 고려하면 올해 주류 부문 실적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판단됨. 또 작년 필리핀법인의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외형 성장 및 공장 축소로 인한 고정비 절감 효과로 1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현 주가는 올해 예상 PER 7.2배로, 소주 시장 점유율 상승세와 필리핀법인 마진을 개선 기대감을 감안하면 저평가 국면으로 보여짐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2,842	3,225	4,183	4,451	4,726
영업이익	223	211	255	296	331
세전이익	169	207	229	258	276
지배주주순이익	128	166	182	205	221
EPS(원)	12,772	16,499	18,083	20,436	21,954
증가율(%)	-6.7	29.2	9.6	13.0	7.4
영업이익률(%)	7.8	6.5	6.1	6.6	7.0
순이익률(%)	4.6	5.2	4.4	4.7	4.7
ROE(%)	9.1	11.6	11.8	12.1	11.8
PER	13.8	8.9	7.2	6.4	6.0
PBR	1.3	1.0	0.8	0.7	0.7
EV/EBITDA	7.5	7.4	8.5	7.6	7.1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롯데칠성 연결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롯데칠성, IBK투자증권





제이시스메디칼

덴서티에 거는 기대

[출처] [하나증권 김성호 애널리스트](#)

신제품 출시, 신규 국가 진출 꾸준히 진행 중

제이시스메디칼은 2000년 설립된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로 HIFU, 비침습RF, 마이크로니들RF, Laser 등 다양한 에너지원 기반의 장비 라인업 보유가 강점이다. 주력 제품인 포텐자, 리니어Z를 통해 해외 향 적극 진출하였으며 2023년 해외 매출 비중은 81.2%로 높은 편이다. 특히 포텐자는 Cynosure와 2019년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ODM 형식으로 판매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국내에서는 연간 판매량 200대를 상회했으며 일본 시장 진출 후 빠르게 침투율을 높여나가고 있기에 향후에도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3년 4월 출시된 비침습RF 덴서티도 기대 모멘텀이다. 기존 HIFU, 마이크로니들RF 장비 대비 고가에 속하는 장비이며 지난 8월 미국 FDA 승인 완료 및 현지 Reveal Laser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4분기부터 동사의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일본 시장에는 지난 12월 공식 런칭되었으며 올해 판매량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미용 기기 수요가 지속되면서 제이시스메디칼의 포텐자, 덴서티 누적 합계 장비 판매량은 1Q23 2,434대 → 2Q23 2,727대 → 3Q23 3,037대 → 4Q23 3,430대로 지속 성장 중이다. 2023년 소모품 매출 비중 40%, OPM 25.4%로 소모품 비중이 높음에도 Peer 대비 OPM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향후 덴서티와 같은 고마진 장비 비중이 상승한다면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발생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덴서티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

Cynosure 계약기간은 2025년까지로 MOQ는 2023년 400대 → 2024년 475대 → 2025년 500대 이상으로 장비 매출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소모품 매출도 25년까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신규 파트너사와의 계약 또는 직접 판매 등의 방안이 가능하며, Cynosure를 통한 포텐자 누

적 판매대수는 약 2,000대로 높은 현지 인지도를 보유하기에 실적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제품 덴서티는 미국 파트너사 Reveal Laser를 통해 올해 7월까지 MOQ 150대 수준을 확보했으며, 과거 포텐자의 성공 사례를 고려하면 덴서티 MOQ도 지속 상승하여 북미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뿐만 아니라 중국 진출도 적극 진행 중으로 포텐자 허가가 기대되는 모멘텀이다. 4Q23 현지 아이메이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특히 중국은 써마지(Solta Medical)의 성공에 따라 비침습RF 시술에 대한 수요가 높기에 동사의 덴서티가 진출 시 침투율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브라질과 유럽에서도 덴서티 판매 강화가 기대되는 상황으로 장비별 신규 국가 진출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매출액 1,748억원, 영업이익 502억원 전망

2024년 매출액 1,748억원(YoY +22.2%), 영업이익 502억원(YoY +38.2%)로 예상한다. 파트너사 다변화를 통해 실적 성장세 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고마진의 덴서티 매출 비중이 상승 시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 24F P/E 13배 수준으로 신제품 효과 및 신규 국가 진출 기대감 대비 저평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51	81	117	143
영업이익	11	24	34	36
세전이익	9	13	34	35
순이익	8	14	27	25
EPS	128	192	381	328
증감률	481.8	50.0	98.4	(13.9)
PER	34.3	40.5	22.4	32.0
PBR	18.3	11.7	7.6	7.6
EV/EBITDA	1.0	20.4	15.8	19.2
ROE	44.5	28.9	34.2	26.1
BPS	240	664	1,118	1,377
DPS	0	0	0	0

도표 1. 마이크로니들RF 포텐자 장비



자료: 제이시메디칼, 하나증권

도표 2. 신제품 비침습RF 덴서티 장비



자료: 제이시메디칼, 하나증권



신성이엔지

클린환경에서의 독보적인 성장

[출처] DS투자증권 안주원 애널리스트

24.1Q Preview: 매출액 1,596억원과 영업이익 49억원 추정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596억원(+31.5% YoY)과 영업이익 49억원(+13.7% YoY)으로 추정한다. 재생에너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133억원, 클린환경은 전년 대비 6% 늘어난 1,455억원으로 예상한다. 재생에너지는 국내 사업물량이 많이 축소됨에 따라 외형은 감소하고 소폭의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클린환경은 지난해 4분기부터 국내 주요 반도체 고객사향으로의 매출액이 늘어나기 시작하며 1분기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자회사 미국법인이 2차전지 기업향으로 수주 받은 1,426억원의 클린룸과 드라이룸 공급으로 좋을 전망이다. 클린환경에서의 두드러진 실적 성장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이다.

반도체 정상화, 2차전지 추가 수주 가능성

지난해 국내 반도체 고객사의 신규 팹 건설이 진행되며 클린환경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일정이 밀리면서 동사의 클린환경 사업부 실적도 부진했다. 다행히 최근에는 P4가 Phase1,3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3분기부터는 Phase2도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실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차전지는 지난해 수주 받은 물량으로 영역을 본격적으로 넓혀가고 있고 올해에도 추가 수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클린환경 수주잔고는 4,10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현재 증평, 용인 공장 모두 풀가동 중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전 분야에 필요한 장비 생산

동사의 클린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제조하는 고청정 공간으로 FFU(산업용 공기청정기), OAC(외조기) 등을 생산해 공급한다. 또한 2차전지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드라이룸은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주는 공간으로 2차전지 성능과 수명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주를 받으며 본격 성장 중이다. 이와 함께 향후에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필요한 항온항습 장비(공기의 온도 및 습도를 일정범위 내에서 유지 가능)생산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으로 고성장 할 수 있는 사업분야들이 늘어나는 중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F
매출액	482	455	664	577	657
영업이익	19	2	21	7	23
영업이익률(%)	3.8	0.5	3.2	1.3	3.5
세전이익	3	-18	47	14	26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4	-16	34	16	22
EPS(원)	-68	-78	166	79	108
증감률(%)	적전	적지	흑전	-52.4	37.3
ROE(%)	-8.8	-8.0	16.3	7.1	8.7
PER(배)	-50.4	-27.5	9.4	25.9	22.0
PBR(배)	3.6	2.1	1.5	1.7	1.9
EV/EBITDA(배)	26.1	48.9	17.4	31.2	19.8

자료: 신성이엔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씨에스윈드

고개를 드는 업황, 실적은

[출처] DS투자증권 안주원 애널리스트

24.1Q Preview: 매출액 6,679억원과 영업이익 468억원 전망

1분기 실적은 매출액 6,679억원(+90.6% YoY)과 영업이익 468억원(+90.5% YoY)으로 추정한다. 부문별로는 1) 타워 4,276억원 2) 블라트 2,250억원 3) 베어링 148억원이다. 타워는 이연되었던 약 1,000억원의 매출액이 1~2분기에 나누어서 반영될 전망이며 미국법인 증설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의 외형 성장이 예상된다. 1분기 AMPC는 257억원으로 추정하며 해당 금액 제외 시 영업이익은 210억원(+183% YoY)으로 전망한다. 영업이익 대부분은 타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며 블라트는 올해 연간으로 정상화를 예상하고 있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포르투갈, 베트남 증설 마무리 + 미국 확장으로 외형 성장 클 것

포르투갈과 베트남 법인의 증설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두 생산시설에서는 해상풍력 타워 공급이 중심이 되고 한창 진행 중인 미국 증설과 맞물려 매년 전사 매출액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은 지난해 하반기 최악의 시기를 지나 미국을 시작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유럽도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가시화되며 2025년부터는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풍력 기자재는 공급부족으로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최근 주가 반등이 반가운 이유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0,000원을 유지한다. 2024년 실적은 매출액 2.7조원(+75.6% YoY)과 영업이익 1,922억원(+83.6% YoY)으로 전망한다. 연간 AMPC는 1,029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893억원이다. 핵심지역인 미국의 가동률이 올라가고(23년 60% → 24F 70%) 주요 고객사로부터 신규수주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실적은 우상향할 것이다. 블라트도 인수 후 좋아지고 있으나 25년부터 본격적인 실적확대가 기대된다. 최근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 중이다. 정책과 매크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특성 상 중장기 성장이 불확실하면 외면 받을 수밖에 없으나 올해 들어 환경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매수로 대응해야 할 시기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195	1,375	1,520	2,670	3,433
영업이익	101	42	105	192	268
영업이익률(%)	8.5	3.1	6.9	7.2	7.8
세전이익	91	5	24	122	192
지배주주지분순이익	66	2	20	103	157
EPS(원)	1,570	45	471	2,488	3,798
증감률(%)	85.7	-97.1	942.0	428.0	52.6
ROE(%)	10.1	0.2	2.2	11.0	15.0
PER(배)	41.9	1,521.1	149.0	22.9	15.0
PBR(배)	3.1	3.3	3.3	2.5	2.2
EV/EBITDA(배)	21.1	29.6	20.7	11.6	9.1

자료: 씨에스윈드,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